

“국내선 존치-무안 이전-이전 능사 아니다”... 광주공항 해법 3인3색

6·4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률을 놓고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전남지사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지상토론을 벌였다. 지역현안을 풀 수 있는 각 경선 후보들의 해법을 들어봤다.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활용방안을 놓고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상당했다. 두 지역 공항이 이대로 두면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법은?

▲강운태=무안공항 활성화는 광주·전남은 물론 호남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 2011년 3월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광주공항은 국내선 기능을 존치하고, 무안공항은 국제선 중심으로 육성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 7월 광주시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해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무안공항 전체가 운항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같은 해 8월에는 국토부가 여건이 성숙되면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신설을 추진키로 계획을 변경토록 건의한 바 있다.

또 무안공항에 중국, 일본 정기노선 취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

광주공항과 관련해서는 2015년 KTX 개통을 앞두고 광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원활히 개최하기 위해서는 광주공항의 국내선이 꼭 필요하다.

광주~김포 등 모든 국내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광주~인천 국제공항 노선 신설, 광주~제주 노선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KTX 개통 이후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항공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저가 항공사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용섭=내년 초 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30분 생활권이 되면 사실상 대구처럼 광주도 국내선 항공 이용객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간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고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상생의 해법이다.

광주 군 공항의 조기 이전을 광주·전남의 공동과제로 추진하여 561만㎡(170만평)의 군 공항 부지를 광주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광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광주'의 세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다. 따라서 광주시민들도 무안공항을 '우리 공항'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제공항으로 키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윤장현=광주공항 문제는 균용비행장 이전, 민간 공항 이전, 공항 안전 이전 등의 다양한 이슈로 팽팽하게 있다. 2012년 광주공항의 여객을 이용한 시민은



강운태 후보



이용섭 후보



윤장현 후보

문화전당 활용방안

이, 호남 고유문화 발굴 브랜드화해야
윤, 주변상가 개발 공예·디자인 집적
강, 첨단영상·게임, KTX와 연계 육성

138만71명이다. 전년대비 4232명이 증가했으며, 광주는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다. 또 KTX 개통에 따라 광주공항의 서울권 수요는 감소하더라도 인천공항과의 연계성, 강원권, 부산·영남권, 제주 등과의 연계성은 여전히 문제가 돼 공항이전 만이 해법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광주공항의 존치안(1안), 군용이전안(2안), 완전이전안(3안) 등에 대한 종합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TF팀을 시장취임 직후 바로 구성·운영해 1년 내에 해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 내년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한다.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 활용방안이 중요하다. 전당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방안은 무엇이 있나?

▲이용섭=광주가 진정한 아시아문화수도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당을 채운 콘텐츠가 중요하다. 문화중심도시에 하드웨어만 있고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광주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술적 자산을 발굴하여 발전시키고 브랜드화해야 한다. 아울

러 '7대 문화권' 조성 및 관련 콘텐츠 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당 안에 호남 고유의 문화를 담아 우리의 것을 널리 알리려 하고, 동시에 광주에만 가면 모든 아시아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최대한 충실한 콘텐츠로 구현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되면 바로 중앙부처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인, 시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방안 체계 확립 및 콘텐츠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

▲윤장현=광주는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해 새로운 가치를 재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와 세계가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존재해야 한다.

우선 문화전당은 연 2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문화적

광주·전남 상생발전

윤, 광발연-전발연 기능적 통합 필요
강, 분야별 실무자회의 공동현안 협의
이, '발전협의체' 만들어 동반성장 모색

공간 조성, 불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의 사업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 문화전당은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거대한 문화공간이다.

그동안 간과되었던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관련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해 전당 주변뿐만 아니라 총장로 4·5가 등 노후 상가를 도심 창의산업지구로 개발해 공예, 디자인, 문화기획, 예술산업 등이 집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복합 문화시설이 도시의 역사적 공간에 들어서는 경우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소탕하기 위한 장소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도시와 지역민들 사이의 매개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강운태=지난 3월12일 정부에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로 광주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지역으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광주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5대 전략 콘텐츠(첨단영상·게임·음악·에듀테인먼트·공예디자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탄력을 받고, 문화콘텐츠 허브도시로 발전하는데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지역특화산업

으로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이고, 빛가람 공동혁신도시에는 15개의 문화·정보통신 공공기관 등이 내년까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광주시는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KTX개통 등과 연계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은 물론 문화콘텐츠 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현안 문제를 놓고 광주와 전남이 따른 갈등을 빚었다. 이전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상생발전 방안은?

▲윤장현=핵심공약 가운데 하나가 '신영산강 시대 광주광역시 상생발전 추진'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 전남도, 광주시 인접 시군 공동 추진위원회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간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

공동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상생지역'에 대한 창의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기능통합을 추진하고, 자체예산확보를 대폭 강화해 연구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 공동혁신도시와의 연계사업 발굴, 의료·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등을 비롯한 ▲광주광역시권 교통망 공동 구축 ▲스마트팜 과학농단지 조성 ▲하남산단과 빛그린산단 연계 활성화 등을 구상하고 있다.

▲강운태=광주와 전남은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체이자 경제·문화·생활공동체로서 상대방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생관계이다. 민선5기 양 시·도는 상생의 대원칙 아래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승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캠퍼스 유치, 서울 용산역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 개설, 광주·전남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나주·담양·함평·화순·장성군 광역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냈다. 앞으로도 광주·전남은 지난 1989년에 구성해 운영 중인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 등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비롯한 분야별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지역 공동 현안을 수시로 협의해 상생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이용섭=호남은 오랫동안 소외받아 왔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으로 각자도생하는 과정에 일부 지역 이기주의로 분열과 갈등이 거품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선 5기에서 광주와 전남 간 협조체제가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많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은 경쟁상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공동운명체일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광역권으로 발전체제를 구축해야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자기 성과에만 집착하면 공멸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선 6기 출범 후 광주와 전남·북이 최대한 협력해 호남권의 동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발전협의체'를 만들 것이다. 전남과 함께 ▲광주·무안공항 활성화를 군부대 이전 나주혁신도시 완성 ▲K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등 광주전남 공동 현안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해 갈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창사 62주년

www.donghak.or.kr

열린의회 열린의정

소통과 신뢰속에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www.jcc.or.kr

제47회 황도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2014. 5.10(토) ~ 11(일) 황토현 전적지 및 정읍시내

주최 : 정읍시

주관 :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후원 : 정읍시의회